

09년 유럽계 기업들의
이란 EPC,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동향

1. EPC, 라이선스, 수출계약(가스전 및 석유화학)

□ 이태리 Technimont社 EPC계약

- 내용 : South Pars가스전 12단계 가스 프로세스 package3(시공 leader)
- 계약규모 : 2억5천만 유로(package3 전체규모는 13억 유로)
 - EU제재 이후 유럽기업의 대이란 EPC계약 최대 규모
- 대림산업은 동 12단계의 Package2에 6억불 규모 EPC 수주 (09.9월 계약)

□ 독일 Basell社 라이선스 공급 계약

- 내용 : 아쌀루예 HDPE 플랜트 라이선스+기본 설계 계약 2건
- 계약규모 : 각 2-3,000만불 규모
- 금년말경 추가 라이선스 1건 계약 전망

□독일 UHDE社 라이선스 공급 계약

- 내용 : 아쌀루예 PDH 플랜트 라이선스+기본 설계 계약 1건
- 계약규모 : 약 2,500만 유로(추정)

□ 독일 Linde社 라이선스 공급 계약

- 내용 : Iran LNG프로젝트 Liquefaction 플랜트 라이선스 계약
- 계약규모 : 3-4,000만 불 (추정)
 - GS건설은 동 Liquefaction플랜트 EPC 수의계약 협의 최종단계(5억불 규모)

□독일 Siemens社 장비공급 계약

- 내용 : Iran LNG 프로젝트용 컴프레셔 등 장비 공급
- 계약규모 : 3-4,000만불
 - Siemens는 대이란 장비 기계류 수출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 기업
 - 스위스 등 기타 유럽기업들도 장비 공급 중

2. 오일, 가스개발 및 구매 계약

□ 이란-스위스 가스공급 계약

- 스위스 EGL社와 이란 NIGEC는 2008.3월 가스 구매계약(25년간, 연 40억 입방미터, 총액 130억불 추정)을 체결, 이란 측에 따르면 2010. 3월 부터 터키를 경유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

□ Iran LNG

- 현재 공정률 25%, 2개 트레인에서 약 1,000mmt/yr생산 예정. 프로젝트 지분은 현재 NIGEC, NIOC,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으나, NIGEC 20%를 제외한 80%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양도할 계획임. 최근 OMV(오스트리아)

등의 유럽기업 및 아시아기업들과 관련사항 협의 중임.

□ **Persian LNG**

- Shell(영국-네덜란드), Repsol(스페인) 각각 25%, NIGEC 50% 지분 보유 중이며 최근 upstream개발 및 조기 생산을 결정(Shell은 당초 upstream, mid-stream 동시 개발을 희망했으나, 최근 NIOC의 제안을 수용하여 early production에 합의)하여, 현재 pre-FID(Final Investment Decision) 단계에 와 있음.

□ **Pars LNG**

- 프랑스 Total(지분 40%), Petronas(지분 10%), NIGEC(50%)참여 협상 진행 중(Total은 2008 철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, 이후에도 low-profile로 이란 측과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)

□ **Dayyer 해상 가스전 탐사 계약**

- 이태리 EDISON社는 NIOC와 \$107mil규모의 페르시아만 Dayyer해상 가스전 탐사계약 체결

<이란주재원 제공>